



사진예술의 감동, 2014 대구사진비엔날레 개막 Photographic Narrative 주제로 31개국 250명 작가 참가

현대사진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사진축제인 '2014 대구사진비엔날레'가 9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구예술발전소, 봉산문화회관 등 대구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자료제공 | 대구사진비엔날레

'Photographic Narrative'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회 '2014대구사진비엔날레'는 세계 31개국 250여명 정상급 사진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중남미,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진작가들의 콜라주, 비디오아트, 대형 포토그램, 라이스페이퍼에 프린트된 독특한 작품들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진의 다양한 표현방법과 사진 원래의 정체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여준다.

알레한드로 카스테요테 기획 주전시 '기원, 기억, 패러디'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진 기획

자이자 이론가인 알레한드로 카스테요테가 기획을 맡은 주전시는 'Origines, Memories & Parodies(기원, 기억, 패러디)'를 주제로 한다. 사진 발명 175주년에 개최된 2014대구사진비엔날레는 주전시를 통해 기원으로서의 사진술(또는 개개의 사진 하나하나)의 현재적 의미, 기억으로서의 사진, 그리고 (예술화된·상식화된) 이미지로서의 사진에 관해 현대사진의 주요 양상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주전시는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작업하고 있는 18개국 30여명 작가들의 콜라주, 비디오 아트, 대형 포토그램, 라이스페이퍼에 프린트

된 독특한 작업 등을 선보인다.

주전시와 함께 열리는 주요 전시로는 이탈리아 현대사진전, 만월:하늘과 땅의 이야기展, 전쟁과 여성(Women in War)展 등이 있다.

"이탈리안 시선으로 본 세계" 이탈리아 현대사진전

이탈리아 현대사진전은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사진작가들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세계 각국의 모습과 인물을 이탈리아 특유의 시선으로 바라본 전시다. '이탈리안 룩 No.3'과 '3인의 이탈리아 현대작가전'으로 구성된다.

이탈리안 룩 No. 3은 이탈리아 현대사진의 특성과 양상을 보여주는 전시로, 14명의 참여 작가들의 고유한 개성인 '시적 감수성'을 형식상의 직관, 가벼운 터치, 섬세한 균형으로 표현한다. 3인의 이탈리아 현대작가전은 바스코 아스콜리니, 다비데 브라만테, 비토리아 두소니 등 3인의 이탈리아 현대사진가가 각기 다른 표현방법을 사용해 리얼리티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아시아 문화 기반으로 본 세상”

만월:하늘과 땅의 이야기

‘만월(滿月) : 하늘과 땅의 이야기’ 전시는 동양적 사유의 근본인 ‘마음’에서 바라본 아시아의 하늘과 땅, 인간을 주제로 한다. 동양 사상은 예로부터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동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은 기계론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현대사회에서 아시아인의 정신과 순환 그리고 공존의 세계관을 통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조망하고, 생명에 대한 경외와 소멸에 대한 기억들을 사진을 통해 표현한다.

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서구 현대사진예술의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대안 제시 및 사진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여성의 눈으로 본 전쟁” 전쟁과 여성

전쟁과 여성(Women in War) 전시는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본 전쟁을 주제로 함으로써 전쟁의 비인간성을 새로이 확인하고 평화의 의미를 돌아보고자 하는 전시다. 자의와 타의를 불문하고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을 주제로 한 ‘전쟁과 여성’, 전쟁터를 누비며 그 실상을 전달했던 여성 종군기자의 눈에 비친 전쟁을 담은 ‘여성 종군기자’,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뼈아픈 과거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정신대’라는 소주제로 전쟁과 여성이라

는 주제를 8개국 18명의 사진작가가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1개의 주전시와 3개의 주요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2014포트폴리오 리뷰’를 통해 아이린 아팅거(Irene Attinger) 프랑스 유럽사진미술관 출판팀장, 엘리나 하이카(Elina Heikka) 핀란드 사진미술관장, 구본창 경일대학교 사진과 교수 등 국내외 24명의 사진전문가로 구성된 리뷰어와 작가들로부터 작품에 대한 평가를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대구시민들이 웃는 얼굴을 촬영해 대구시내 중심가 건물에 대형 걸개 사진으로 전시하는 ‘소웃소웃한 행복사진관’, 대구시내 종로일대 및 진골목에 위치한 음식점 등에 작품을 전시해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사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시프로젝트 - 맛있는 사진관’, 대구의 고택, 근대골목을 탐방해 사진을 촬영하는 ‘대구근대골목 촬영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문의 | 053-655-4789



1. 이탈리안룩3-Life in File #2224, 2008, Lambda print on carbonless copy paper from digital file, 27 x36 cm, limited ed. of 7 ©Enrico Bedolo
2. 3인의 이탈리아 현대작가전 -Last New York (Disney+Mexell) © Davide Bramante(다비데 브라만테)
4. 전쟁속의 여성-The Unforgettable Forgotten Women ©김영희(Yunghi Kim)
5. 만월 - Saeed Rezvania 135 Trees ©Saeed Rezvania

